

## 본당 소식

2024년 8월 교황님 기도지향 :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면서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 ♣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야외 미사

- 의무대축일일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에 야외 미사가 있습니다(장소는 추후 공지).

### ♣ 대구대교구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님, 장신호 요한보스코 주교님 한인성당 방문

- 일시: 2024년 09월 22일(주일), 11시  
- 이날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하시는 조환길 대주교님, 장신호 요한 보스코 주교님의 주례로 견진성사가 있습니다.

### ♣ 견진성사 대상자(각 구역별) 파악

- 8월 25일(주일) 까지

### ♣ 견진 교리 일정

- 매주 9시 30분, 오라토리오

9월 1일(첫째 주)	9월 8일(둘째 주)	9월 15일(셋째 주)	9월 22일(견진일)
성경이란 무엇인가	7성사와 성령 칠은	신앙생활(기도)	예식 연습

### ♣ 본당 주임 휴가 일정(8월 19일-30일)

- 8월 25일 본당 주일 미사가 없습니다. 현지 본당 미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봉사자

• 계단, 화장실:

###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218,90€      • 교무금 €

### 전례 성과

입당 : 32 (언제나 주님과 함께)  
봉헌 :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성체 : 180 (주님의 작은 그릇),  
176 (믿음 소망 사랑)  
파견 : 6 (찬미 노래 부르며)

### 전례 봉사

이번 주일	다음 주일
1독서:	1독서:
2독서:	2독서:
복 사:	복 사:

##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총무: 변의용 베네딕토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이승지 로사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박수정 클라라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2024년 8월 4일 (녹) 연중 제18주일

### 미사 전례

#### 제1독서 (탈출기 16,2-4.12-15)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건힌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 화답송

◎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

-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
-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4,17.20-24)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6,24-35)

그때에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

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빛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의 빛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통치자이신 주님,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굽어살피시어, 그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며 국민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며 친절과 배려로 참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4. 교구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좇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성체 후 기도**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